

KDI 초창기에 바친 나의 작은 노력

데이빗 콜(David C. Cole)

〈USAID 고문 · 하버드대학교 교수〉

○ 김만제 원장과 나

1971년 초 USAID/K의 기획부서 책임자였던 토머스 옴스티드 씨는 나에게 USOM/K와 한국의 경제기획원이 구상 중인 경제정책연구소 설립 계획을 도와주도록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총리였던 김학렬 장관을 만났을 때, 새로 설립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책임자로서 김만제 박사가 연륜과 경험면에서 적합한지를 물었던 일이다.

나는 김만제 박사가 1964년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그와 나는 1964,65년에 경제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긴밀하게 일한 적이 있었으며,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의 경제학자들에게 연구자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에도 함께 관여했고, 또

1965,66년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업을 함께 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노스웨스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도 함께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김만제 박사와 이희일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에게 뉴욕의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을 방문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해 보라는 권고를 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잦은 접촉을 통해 김만제 박사를 잘 알고 있던 나는 김학렬 부총리에게 김만제 박사 이상으로 좋은 적임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김만제 박사는 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에 경험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책 감각도 지녔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부총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때의 내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만제 박사는 KDI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10여 년 동안 KDI에서 쌓은 그의 업적은 나의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 KDI 초창기와 하버드대학교

1971년 가을, 인도네시아에서 그 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의 고문으로 일하다가 하버드대학교로 돌아온 나는 프린스턴대학교로부터 자기 대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프린스턴대학교에는 래리 웨스트팔(Larry Westphal), 쉘만 로빈슨(Sherman Robinson), 찰스 프랭크(Charles Frank) 교수가 그곳 경제학과 교수진에 속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한국을 위해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우드로우 윌슨 스쿨(Woodrow Wilson School)의 학장이었던 존 레위스는 특히 KDI를 위한 기술원 사업에 프린스턴대학교가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사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프린스턴대학교에도 강력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세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를 프린스턴대학교로 초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심사숙고 끝에 하버드대학교에 그냥 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하버드대학교가 KDI를 돕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고 나는 그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본래 USAID/K는 이 프로젝트의 디렉터는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당시 나는 3년 동안의 인도네시아 체류를 막 끝내고 하버드로 돌아와 강의를 맡고 있었으므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짐을 쌀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와 김만제 원장은 내가 서울에 가지 않고서도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며, 또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와 김 원장이 서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와 편지로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USAID/K 측에 설명하고 설득을 할 수 있었다.

KDI가 발족한 다음 해 김만제 원장은 수석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어 주었다. 우리는 3명의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을 파견하여 1972년 여름 몇 주 동안을 KDI에서 보내며 그들의 연구보고서를 세심하게 읽고, 또 그들의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 3명의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사이몬 쿠즈네츠(Simon Kuznets), 로버트 도르프만(Robert Dorfman), 드와이드 퍼킨스(Dwight Perkins) 교수였다. 보고서에 대한 하버드팀의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수준 높은 학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이몬 쿠즈네츠 교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 출처나 정확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결과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KDI 수석연구원들의 기억에 남은 강의를 통하여, 그들에게 2,3년 동안 가장 흥미 있는 분야의 자료들을 다루어 보고 자료의 장점과 취약점을 모두 파악한 후, 그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작업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김만제 원장은 전적으로 이 충고를 받아들여 KDI의 연구 프로그램을 그러한 방향으로 재편성하였다.

하버드팀의 두 번째 역할은 KDI가 한국 내 유명 대학에서 선발한 연구원들이 미국의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일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KDI로 복귀했다. 그들 중 특별히 성적이 좋았던 몇몇 사람들은 미국의 유명 대학 경제학과에서 계속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들은 모두 KDI의 수석연구원으로 봉사하였다.

하버드팀의 세 번째 역할은 KDI 도서관을 KDI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연구기관들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류 연구도서관으로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IT의 사회과학도서관장인 켄 데이비(Ken Davy) 씨가 이 일을 맡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1975년에는 KDI가 이미 아시아의 유명한 정책연구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연구소로 발전하였다. KDI는 여러 개의 거시경제모형을 개발하여 단기 안정화 문제와 중기 투자 선택에 사용하였고, 제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발족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KDI는 아시아 및 서방세계의 학자들이 참석한 국제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하버드팀은 KDI가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제휴 관계를 맺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더 이상 도와줄 일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1975년에 우호적으로 돕는 일을 끝냈다. KDI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KDI-HIID의 한국 근대화에 대한 공동 연구

KDI에 대한 하버드팀의 임무가 끝나자 USAID/K의 국장으로 있던 미카엘 헤리스(Michael Hennis) 씨가 김만제 원장에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사업의 성과에 관해 미국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만제 원장은 KDI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다루어야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관한 공동 연구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몇 차례의 타협 끝에 연구조건에 대해서는 합의

를 보았지만, 미국의 원조 역할에 비중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였다.

이 공동 연구사업에 참여할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오자 하버드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가 다시 주 경쟁기관으로 부상했다. 내 기억으로는 브루킹스연구소와 스탠포드대학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나, 하버드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만큼 한국의 최근 개발 현황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이 공동 연구사업에 연구 제안서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 1975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 성향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특히 하버드에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더욱 심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은 남쪽 정부의 몰락으로 종결되었으며, 필리핀, 대만,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독재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미국인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강했다.

그러나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하버드대학교 측의 결심은 에드워드 메이슨(Edward Mason) 교수에 의해 마침내 결정되었다. 메이슨 교수는 드와이드 퍼킨스(Dwight Perkins) 교수와 내가 포함된다면 하버드팀의 책임자로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공동 연구에는 한국의 현 정책이나 장래의 계획이 아닌 한국의 개발사(開發史)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하버드팀, 즉 메이슨 교수 자신이 최종 편집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시 메이슨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강의에서는 은퇴하였지만, 오랜 하버드대학교 재임기간 동안 문리과대학의 학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학의 설립자이며 학장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경제협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회장이었으며,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였다. 이런 그가 기꺼이 하버드팀의 리더로 나서 다른 교수들에게 그 공동 연구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한국에 대한 외국 원조

에 대해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중견 학자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여 하버드대학교는 KDI와 함께 이 공동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 연구사업은 그 후 수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12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KDI 수석연구원들과 하버드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인 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졌다. 그리고 그 연구사업은 현재까지 하버드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착수했던 연구사업 중 가장 야심적인 사업이었고, 또 널리 알려진 사업이었다.

이 책들은 대부분 1980년 및 그 후 수년 내에 완성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은 많이 감소되었다. 연구결과는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되었는데, 영문판은 하버드대학교의 동아시아연구협회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으며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 배포하였다. 이는 하버드대학교가 이 책들의 출판에 기꺼이 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한글판은 KDI에서 출판되었다.

한국의 근대화과정 연구가 끝난 후 나와 KDI의 접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나는 멀리서 그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때때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KDI 학자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

KDI 설립에 내가 일조하였고 초창기에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나에게서는 즐거운 추억이고 보람이다. KDI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켰으며,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가져온 정책 수립에 분명히 큰 공헌을 하였다.

여전히 한국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악화된 환경오염과 인구밀집문제, 그리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나는 KDI가 이 새로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척결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고 기대한다.